**집을 순례하다**, **다시, 집을 순례하다** **1402067 천사랑**

마음을 먹고 재미있게 신나서 읽었던 책이었던 거 같다. 사진도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의 모습에맞게 자세히 수록되어 있고 손으로 그린 도면으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집을 순례하다” 책에서 내 스타일로 끌렸던 집은 르 꼬르뷔지에의 ‘어머니의 집’ , 루이스 칸의 ‘에시릭 하우스’, 그리고 필립 존슨의 ‘타운 하우스’ 였다.

매번 말로만 듣던 그 르 꼬르뷔지에가 왜 대단한 지 책에 찬찬히 써 있는 설명과 공간을 공간에 맞게 가구를 만든 이유가 나에게 설득력 있게 읽혀졌다. 그리고서는 르 꼬르뷔지에의 작품들을 찾아보기 시작 했던 것 같다. 찾아보며 ‘롱샹 성당’에 다시 한번 감격하였다. 기독교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진에서 느껴지는 그 경외감을 직접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던 거 같다. 만약에 직접 이것을 내가 보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의 ‘사드라다 파밀리아’ 하고도 견줄 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건축을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은 직접 보고 싶게 만들고 그로 인해 여행을 더욱 가고 싶게 만든다. 어떠한 이론적인 설명 보다도 직접 느껴본다면 다를 것 이기에…

두번째 작품은 루이스 칸의 ‘에시릭 하우스’

이 작품은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작품으로 1학년때 거장들의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때 이 집을 선택했던 적이 있었다. 그 때 조별과제로 르 꼬르뷔지에의 ‘빌라 사보아’와 경합을 벌이다 못만들었지 만 개인적으로는 ‘빌라 사보아’ 보다 더 이뿌다고 생각하는 집이다.

솔직히 루이스 칸에 대한 다큐를 보았을 때 굉장한 괴짜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그 솔트레이크에 연구소는 와 멋있다 이전에 좀 무섭다는 생각이 많았던 터라 나에게 루이스 칸은 좀 무서운? 건축가로 인식이 있었다. 루이스 칸의 건축은 좀 거대한 외계인을 위한? 느낌의 건축물이라는 느낌이 있다. 유치한 표현이지만 솔직한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에시릭 하우스’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흔히 알던 미국드라마에 나오는 이층집, 마당이 있고 지붕이 뾰족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집은 뭔가 거대하고 우악스러움이 없이 담백한 느낌의 집 이었다.

집 밖에서 보면 아담하고 무엇인가 많이 잔잔해 보인다면 집안은 거대한 창과 높은 층고를 두어 아주 시원스럽게 느껴진다. 반전이 느껴지는 집이었다. 빛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축가 다운 엄청난 크기의 창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원목을 좋아하는데 집의 모든 부분이 죄다 원목이다. 집안에서 원목의 향이 그윽 할 것이 기대되는 집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집의 느낌이 차갑게 느껴져 추울 것 같다. 집이 춥다면 다시 생각을 해 봐야한다. 이것 또한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꼭 가보고 싶은 집이다.

이 책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손으로 그린 도면으로 설명해 주는데 이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든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가만히 보게 된다. 예전 어릴 때 엄마가 감자튀김을 해주면 누워서 손에 기름을 묻히며 보듯이 그 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날 만큼 편하고 재미있게 읽히는 책이다.

세번째 작품은 필립 존슨의 ‘타운 하우스’

이 집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지? 라는 생각밖에 ‘에시릭 하우스’ 와는 느낌이 참 많이 다르다. 2학년때 주택설계를 할 때 이 집의 입구에서 수납장을 지나가는 느낌을 나타내고 싶었다. 집이 전체적으로 길고 침실까지의 가는 동선속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침실과 거실의 아주 럭셔리 하게 나눠진다. 이 집은 아늑함 보다도 미술관에다가 급하게 쇼파와 침대를 가져다 놓은 느낌이다. 실제로 가서 본다면 또 그 느낌이 다르게 느껴질테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집의 입구,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군더더기가 없다. 깔끔 그 자체 일본 건축 느낌도 난다. 그래서 그런가 다시, 집을 순례하다에서 안도 다다오의 ‘스미요시 연립주택’을 보면서 이 집이 떠올렸다. 직선으로 쭉 뻗어있는 것과 집안에 외부의 공간을 가져왔다라는 점이 닮았다. 하지만 ‘스미요시 연립주택’은 일본 틱하게 작고 조잡한 느낌이 든다. 실제로 여기서 산다면 답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사진으로만 본 나의 의견이기에….책에는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사소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부분은 “ 이 집은 느슨한 마음으로 편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근사근하고 속 편한 집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이다. 더위와 추위, 비와 바람, 태양의 빛 등 자연의 온갖 은혜와 가혹함에 있어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집이다. 과연 집안에서 자연은 온전히 느낌이 좋을수 있겠지만 나라면 괜찮을까? 라는 의문을 제시한다.

어찌됐든 다시 ‘타운 하우스’로 돌아와서 입구를 지나 바로 앞에 수납장이 있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다. 저걸 건너간다면 무엇이 나올까? 하는 그렇게 들어간 공간에 벽난로와 가구들이 나온다. 내가 도면을 보고 생각한 공간 보다 좀 더 큰 편이기에 거실에서 내가 생각한 포근함은 느느끼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침실로 가는 중간에 물이 있는 중정을 둠은 정말 이 건축가 부자라고는 얘기를 들었지만 생가가 자체가 다르구나 생각한다. 안도 다다오는 자연을 온전히 느끼기 위함의 자연을 두었다면 필립 존슨은 세련, 우아 스러움이 묻어나는 공간의 연출이다. 침실에서 자고 일어나 물결이 잔잔히 일어나는 중정을 바라보는 것이 귀족적임 그 자체가 아닐까 싶다.

다시, 집을 순례하다에 수록되어 있는 필립 존슨의 ‘글라스 하우스’ 도 럭셔리 그 자체를 보여준다. 이 집을 책으로 접했을 때 와 나는 여기서 못산다. 였는데 뭐 그 주위가 다 자신의 땅이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혁명 같은 느낌의 집이였다. 책에 <글라스 하우스> 평면도 변천사 라고 해서 필립 존슨의 생각의 노력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원통형 화장실이 초반에는 나타났다가 중반에 사라졌다가 다시 마지막에 나타난다. 여러가지 시도와 생각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어 흥미롭게 읽었다. 세상 뛰어난 건축가의 세심한 생각을 엿 볼수 있다는 것이 재밌다. 설계를 함에 있어 디자인이 나오는 과정을 제대로 담아 두어야 겠다 는 생각을 다시금 해본다. 정리에 소질이 없는 것인지 왜 디자인 이라던디 생각의 표현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3학년때는 오피스와, 공동주택을 하면서 트래이싱지를 주차별로 모아는 놨는데 방학동안 정리한다면서 손도 못댔다.

이번 기회에 이 책들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어느 건축가, 그리고 그 집을 좋아하는 이유와 어느 부분을 더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글로 쓰고 있으니 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확고해 진다. 정리가 필요하다.

네번째 작품은 루이스 바라간의 ‘루이스 바라간의 집’ 이다.

이 집은 예전에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사진한장을 봤는데 그 사진에 반해서 이런 느낌의 집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집이 어디에 무슨 집인지 잊어 버린 채 있었다. 그러다 이 책에서 그 사진속의 그 장면을 찾았을 때 아 이 집이구나…..

멕시코, 중남미 특유의 색감도 멋있지만 큰 창 가운데 십자형 틀이 있고 그 밑에 탁자와 의가가 놓여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햇빛이 떨어지는 맛이 눈부시지도 그렇다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느낌이 너무 좋다. 멕시코의 날씨를 반영하듯 더운 날의 햇살을 적절히 받아내는 그 창과 집의 높이 또한 아주 멋있다.

집이 전체적으로 열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정도 닫음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쓰기 힘든 색감으로 화려하지만 또 너무 화려하지도 않음을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집의 평면도는 아주 복잡하다. 하지만 계속 보고있다 보면 아주 재미있게 읽혀진다.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생각해서 연결을 시켰을까 이유 있는 흐름과 그 흐름에 맞게 뚤려 있는 창이 재밌는 부분이다.

역시나 정말 한번 이라도 꼭 가보고 싶은 집이다. 과연 갈수 있을까…..

‘집을 순례하다’ 와 ‘다시, 집을 순례하다’ 라는 책을 처음에는 가볍게 접했지만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재밌고 각각의 건축가들의 다른 작품도 궁금해지고 나에게는 아끼는 책이다. 너무 무거운 내용 보다는 이런 느낌의 책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